

[보도자료]

## 한국오가논, 서울시·난임가족연합회와 함께 사내 난임예방교육 실시

- 여성건강 증진 위해 사회적 협력은 필수라는 공감대... 난임 예방·인식 개선 앞장서
- 유연근무·난임지원 프로그램 등 직원 건강과 일·삶 조화를 위한 기업문화 실천

서울, 2025년 11월 21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사무소에서 서울시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난임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하는 오가논이 임신과 난임 예방을 위해 본인, 가족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협력이 필수라는 공감대 속에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료됐다.

난임예방교육은 저출생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임력 보존과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고자 난임 전문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보건소, 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가임기 남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함춘여성의원 산부인과 이종엽 원장이 한국오가논을 방문해 통계로 보는 임신과 출산부터, 난임의 주요 원인과 예방 방법, 가임력 검사와 중요성, 건강한 생활습관과 임신 준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강의 중 임직원들이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심층적인 질문을 나누는 등,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종엽 원장은 “난임과 고령 임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 한국오가논에서 진행한 교육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남녀 직원분들 모두 여성건강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개인 고민을 오픈하고 제약업계 전문가로서의 시각까지 더해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한국오가논의 여성건강 비전을 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은 우리 파운더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이번 교육도 우리 파운더들의 건강과 삶, 미래를 위한 선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뜻깊은 캠페인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각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오가논은 여성건강에 주력하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공급은 물론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하며 유연근무제, 본인과 가족돌봄을 위한 연간 10일의 추가 유급휴가, 주 2회 재택근무, 난임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직원의 삶과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지원 프로그램은 난임 검사, 체외수정, 배란유도, 난자·정자 동결 등 비용을 200만원까지 지원해 임신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사진 1: 한국오가논이 지난 20 일 서울 광화문 사무소에서 서울시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난임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2: 한국오가논 난임예방교육 단체사진